

환희와 공포... 1945년 해방의 풍경은

광복 80주년, 8·15의 새로운 의미를 찾다



해방의 기억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지음, 지식의날개, 1만9000원

국경은 달랐지만 광복은 모두의 것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으로 도래한 광복은 식민 정책으로 곳곳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신간 '해방의 기억'은 제국의 종식을 기해 한반도·중국·일본의 코리안들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짚어 본다. 가령 일본 제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만주국의 황제 푸이가 만주국이 멸망했음을 선언하자 연길의 조선인들은 기쁨도 잠시 이내 국공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일본의 교묘한 이간질로 '이등 신민' 대우를 받았던 재만(在萬)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 역시 폭력으로 분출되었다. 책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8·15의 풍경을 소개하는 데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국 현대소설의 기법적인 바탕을 이룬 이태준의 단편소설 '해방 전후' '농도' '호랑이 할

머니' 등에는 해방의 시기에 혼란과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외에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한 설안최국철 등 조선인의 문학 작품, 해방 이후에 적지 일본에서 끊임없이 배제와 차별을 겪었던 재일조선인 소설가 김사랑·이회성 등의 소설도 살펴본다. 광복 후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봉강 정해룡·정해진 형제의 활약도 비중 있게 그려진다. 이들은 총가 재산 중 형제가 물려받은 몫의 전답을 매각하여 독립자금으로 지원했고,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신분을 해방시키고 이들에게 종가의 남은 재산인 전답을 무상으로 분배하여 살길을 마련해 줬다. 책은 "광복 이후 토지개혁의 요구가 일어나기 전에 단행된 가히 선구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임요희 기자 lye@skyedaily.com

별이 된 반려견...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신화 판타지로 어루만지는 청소년 우울감



넌 언제나 빛나

조영주 지음, 책이라는신화, 1만4000원

온라인에 갇혀 사는 요즘 아이들은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점차 잊어 가고 있다. 소통의 부재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마음을 옥죄는다. 조영주 작가의 '넌 언제나 빛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파돌람·우울증·자살 등 이 시대 청소년들이 마주한 현실에 깊이 공감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잃은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점점 위축되어 가는 빛나, 스스로 자파(자발적 왕파)로 살아가는 익현, 부유한 환경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자란 조빈을 통해 각각 다른 문제와 상처를 지닌 세 아이가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 나간다. 반려견 모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반에서 왕파까지 당하게 된 빛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신화숲공원에

로 향하는데 그런 빛나 앞에 검은 반점의 사슴이 나타난다. 빛나는 모이가 사슴으로 환생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슴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비형랑 신화' 속 '길달'이었다. 소설 속 길달은 1500년 동안 소나무·금개구리·강아지·고양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환생하면서 인간들을 도왔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는 이 없이 외롭게 지내 왔다. 길달은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봐 주는 빛나의 곁을 지키며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준다. 그러면서 익현과 조빈의 상처와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들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세 친구는 길달과의 만남을 계기로 서서히 마음 문을 연다.

임요희 기자 lye@skyedaily.com

AI로 故 김성재 소환... 듀스 4집 만든다

“듀스로 활동하던 20대 초반 두 청년이 3집을 내고 해체했는데, 만약 4집이 나왔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죠. 듀스 음악을 듣고 열광했던 기쁨을 지금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힙합 듀오 듀스가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30년 전 세상을 떠났던 고(故) 김성재의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나 팬들을 만난다. 듀스의 이현도는 자신의 20대 시절을 그대로 구현한 음악으로 기존 팬과 듀스를 모르는 젊은 층을 동시에 사로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녹음실에서 만난 이현도는 “빠르면 올해 연말에 신곡을 내기 시작해 듀스의 정규 4집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요즘 세대에게도 ‘누군지 모르는데 멋있다’라는 반응을

30년 전 떠난 멤버 음성 복원 빠르면 올해 말에 앨범 발표 “신세대는 우리를 모르지만 영상 만들어 선보일 준비도” 연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1993년 결성된 듀스는 당시 유행하던 뉴잭스윙(힙합과 알앤비를 결합한 흑인 음악)을 적극 차용한 음악으로 데뷔와 함께 두각을 나타냈다. 듀스는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1995년 해체를 선언했고 그해 김성재가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팬들의 기억 속에 그 모습으로 남게 됐다. 듀스의 이름으로 발표한 마지막 노

래는 김성재가 발표하려던 미완성곡에 이현도가 랩 가사를 엮은 ‘사랑, 두려움’이다. 이 곡은 1997년 듀스 베스트 앨범에 수록됐다. ‘사랑, 두려움’ 발매 당시 아쉬움이 남았다는 이현도는 AI를 활용한 음성 추출·학습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듀스 신곡 발매를 계획해 왔다. 현재는 신곡 작업을 진행하며 음성 추출과 학습을 담당할 업체를 물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현도는 “기존 듀스의 음원에서 목소리를 추출해 김성재의 목소리를 만들고 제 목소리를 더해 음원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신곡을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림 음향을 살린 ‘듀스표 뉴잭스윙’이 여전히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나를 돌아봐”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배경음악으로 활용된 것에서도 듀스 음악을 향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현도는 올해가 김성재 30주기인 만큼 그의 뜻있는 면모를 알릴 생각이다. 김성재의 유족과 소통하며 그의 목소리를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도 구했다. “밴드 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처럼 이번 활동을 통해 성재가 빛나는 모습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사회가 성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면에만 초점을 뒀는데, 성재의 맛있는 모습을 알리고 싶습니다.” 듀스 앨범 제작에 박차를 가하는 이현도는 올해 연예기획사 와이드컴퍼니를 설립하고 아이돌 육성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듀스 멤버 이현도가 30년 전 세상을 떠난 고 김성재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되살려 듀스 정규 4집을 낼 예정이다. 1997년 발매된 듀스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작은 사진), 와이드컴퍼니



다문화학교 설립 인순이, 펄벅 ‘영향력 있는 여성상’

“인순이(사진)는 인도주의자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의 옹호자다. 6·25전쟁 이후 한

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펄벅 인터내셔널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미국 펄벅인

터내셔널이 시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상(Woman of Influence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펄벅 인터내셔널(Pearl S. Buck International)은 “문명의 시험은 무력한 구

성원들을 돌보는 방식에 있다”고 한 펄벅 작가의 사명과 유산을 이어가는 단체다. 18일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2013년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 학교인 해밀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사회적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음악 산업에서 성공을 거뒀고 고국에서 유명해졌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임요희 기자 lye@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